황금연휴 전남에서 추억 만드세요

목포 바다분수

■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나주-국립박물관 음악 공연·캠핑
담양-미술관 무료 입장·테지움 할인
목포-'춤추는 바다분수'
장흥-토요시장 공연
해남-땅끝 작은 음악회

6월 첫 주말에 국립 나주박물관과 해남군 땅끝 관광지 등지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 후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중단됐던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공연도 다시 열린다.

◇나주와 담양 박물관 공연 다채=국립 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7일 오후 2시 박물관 이벤트홀에서 '영화 음악속 클래식 이야기'를 주제로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나주박물관이 운영하는 '토요박물관 나들이'의 두 번째 문화행사이다.

류경주(바이올린), 이지선(비올라), 하세연(첼로)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클래식 공연팀 '하늬바람'이 실내악의 선율을 선사한다. 이들은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기량을 바탕으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냉정과 열정 사이', '미션 임파서블' 주제음악을 들려준다.

또한 박물관 측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21~22일, 1박2일 일정으로 박물관 후원에 마련된 캠핑카와 캠핑데크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준다.

담양군은 7일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무료 및 할인행사를 마련한다. 앞서 전남도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담양읍 향교리에 위치한 대담 미술관과 고서면 고읍리 명지 미술관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담양읍 메타세쿼이아 길에 위치한 테지움 테마파크 내 '히든 트릭아트 뮤지엄'은 입장료가 30% 할인된다.

이곳은 6개의 주제관 별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군에서 관리하는 '한국 대나무박물관'도 7월부터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목포 바다분수 공연 재개='세월호' 사고 이후 일시 중단한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이 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축하 사연과 기념일, 프러포즈, 생일 등 사연소개 코너는 세월호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

바다분수는 가로 138m, 세로 59.58m, 분수노즐 276개, 최대 분사높이 70m로 세계 최초·최대 부유식 분수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 형형색색의 물기둥과 다양한 음악, 영상과 레이저가 조화를 이룬 멀티미디어 쇼를 펼쳐 관람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공연시간은 화~목, 일요일 밤 8시40분과 9시 20분 2회, 금·토요일은 밤 8시 40분, 9시 20분, 10시 등 3회다.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역시 7일부터 매주 토요일 2차례(오전 11시30분·오후 2시 30분) 공연을 다시 펼친다.

지난 2005년 7월 전국 최초 토요시장으로 개장한 장흥 토요시장은 전국 지자체와 상인회가 찾아와 벤치마킹하는 전통시장이다. 지난해 6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1000억원 이상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7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10회에 걸쳐 땅끝 관광지 맴섬앞 광장 무대에서 '땅끝 작은음악회' 공연을 개최한다.

(사)한국생활음악협회 해남지부가 주관하는 '땅끝 작은 음악회'는 퓨전 국악·7080 공연·트로트 공연 등 회차별로 각각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린다.

1회 차인 7일에는 '통기타와 바다의 연애이야기'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자랑 코너도 마련해 해남산 농·수·특산물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채철 한국생활음악회 해남지부장은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이 위로받고, 행복을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국립 나주박물관

담양 테지움 테마파크 히든 트릭아트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공연

해남 땅끝 작은 음악회

이순신 대교

이순신대교 10월15일까지 교통통제

노면 재포장 공사 진행

광양항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이순신 대교의 노면 재포장 공사를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이순신 대교 총 2.26㎞ 4차로 구간의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5㎝ 두께의 '에폭시 아스팔트'를 재포장한다. 전면보수 기간 동안 양방향 4차로 통행 구간을 2차로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이순신 대교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에 2.5㎝ 두께로 포장해 임시 개통했으나 균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학에 의뢰해 포장층 균열 원인규명을 한 결과 전체 5㎝ 두께의 포장을 완료한 후 차량이 통행해야 함에도 박람회를 앞두고 임시로 2.5㎝만 시공한 뒤 임시 개통하면서 포장 층의 피로 누적으로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시 묘도와 광양시 금호동을 잇는 이순신 대교는 1545m의 기둥 사이가 국내 최장을 자랑하며, 해수면에서 상판까지 높이가 80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로 알려져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매실 직거래장터 오늘 열린다

내일까지 다압면 섬진마을 매실따기·캠핑 등 행사 다채

광양시는 본격적인 매실 수확기를 맞아 6~7일 1박2일 동안 다압면 섬진마을(매화축제장) 주차장에서 '힐링 캠프와 함께하는 광양매실 체험 직거래장터'를 연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광양매실 직거래장터는 광양매실 따기와 광양매실 장아찌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명품 광양매실 선발대회, 최고의 가매주(家梅酒) 찾기, 매실 가공제품 전시·판매, 광양시 농·특산물 판매, 무료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힐링 캠프는 청매실 농원 트레킹 및 섬진강 자전거길 트레킹 체험과 투호 등 전통놀이, 통기타 공연 등 프로그램 중심으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치유 캠프에서는 홍쌍리 명인이 참가자들에게 '매실사랑 이야기'를 통해 광양매실의 역사와 효능을 들려줄 예정이다.

5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힐링 캠프 참가비는 5만원이며, 캠핑에 필요한 텐트(4~5인용)와 침낭, 매트, 버너, 코펠 등은 무료 제공한다. 문의(061-762-0797)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강진, 참꼬막 보호 위해 자연산란장 조성 '박차'

갯벌 감소·남획…개체수 감소

강진군이 참꼬막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12년부터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모패장 7개소와 중간 육성장 4개소를 조성했고, 올 하반기에도 7000만원을 들여 중간육성장 2개소를 추가한다. 이어 2016년까지 자연산란장과 중간 육성장 조성에 20억원을 투자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4㎝ 크기의 어미 참꼬막을 바다에 살포해 2년 이상 채취하지 않는 참꼬막 자연산란장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이 참꼬막 자연산란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꼬막의 주요 서식지인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싹쓸이 남획으로 갯벌이 황폐화된데다 수십 년간 채취만 하는 과정에서 자연산란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강진군 대구면 상저마을과 칠량면 보련마을 주민 20여명은 참꼬막 성패 4.2t을 바다에 살포했다.

꼬막 성패 살포는 어선에 하역한 후 삽을 이용해 마을 꼬막 면허지에 3~4차례에 걸쳐 골고루 뿌리는 작업을 되풀이하는 고되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자연산란장이 조성되면 몇 년 후에 3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어민들의 기대가 크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 농촌 환경 정비사업 11월까지 도로·교량 개선

영암군이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2014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 외 6개 읍·면에 16억 8900만원을 투입해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2.2㎞ ▲농로 확·포장 0.38㎞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1.8㎞ ▲노후교량 개축 1개소 등 농업인의 생활기반을 구축해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노후 교량 개축과 마을 안길 확장 사업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영암=대성수기자 dss@